월간 '10-10', 전반기 '20-20', 데뷔 첫 사이클링 히트…'3할-30홈런-30도루'·최연소 MVP 잰걸음

"'김도영 시대',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KIA 김도영이 써 내려가는 KBO 새 역사

유망주에서 '슈퍼 스타'로 변신한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프로 데뷔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지난 23일 NC와의 홈 경기에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안타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로 날리며 개인 통산 첫 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올 시즌 KBO리그 첫 번째 사이클링 히트이며, 역대 31번째 대기록이다.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김주찬(2016년4월15일)과 로저 버나디나(2017년8월3일)에 이은 세 번째 기록 달성의 주인공이다.

20세 9개월 21일에 첫 사이클링히트를 터뜨린 김도영은 2004년 20세 8개월 21일의 나이로 이 기록을 세운 신종길(당시 한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앞선 30번의 사이클링 히트 기록에서 차례대로 1루타-2루타-3루타-홈런이 터지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건 건 딱 한 차례다.

1996년 4월 14일 롯데 김응국이 안타-유격수 땅볼-2루타-3루타-홈런 순으로 유일무이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 김응국의 기록에 땅볼이 껴있었다면, 김도영은 4타석 만에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이뤄낸 KBO리그 최초의 선수가 됐다.

1회 내야 안타로 사이클링 히트 시작을 알린 김도영은 3회 2루타를 때린 데 이어 5회엔 좌중간을 가르는 타구를 날린 뒤 질풍처럼 3루에 도착해 3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그리고 KIA가 6-1로 앞선 6회 무사 1루 상황에서 왼쪽 담장을 넘는 투런 아치를 그리며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설마했던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장은 김도영을 외치는 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도영은 올 시즌 KBO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전반기 20홈런-20도루 기록 달성 등 대기록을 달성하며 팀의 중심타자로 맹활약 중이다.

타율(0.354) 3위, 홈런(25개) 2위, 안타(129개) 2위, 3루타(5개) 공동 3위, OPS(출루율+장타율) 1위, 멀티히트 1위 등 각종 공격 지표에서 상위에 랭크돼 있다.

4월과 6월 월간 MVP에 선정되면서 전반기에만 2차례 월간 MVP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전반기 MVP 2회 수상은 KBO 리그 역대 3번째로 KIA 전신인 해태를 포함해 타이거즈 선수 중 최초다.

김도영이 눈앞에 두고 있는 또 하나의 대기록이 있다. 바로 호타준족의 대명사인 30(홈런)-30(도루)이다. 30(홈런)-30(도루) 고지는 지난 2000년 박재홍(당시 현대 유니콘스) 이후 24년 동안 국내 선수 중에 나온 바가 없는 엄청난 기록이다.

23일 현재 김도영의 30-30 기록 달성까지는 홈런 5개, 도루 1개가 남은 상황이다.

김도영이 30-30 고지를 밟으면 에릭 테임즈 이후 9년 만에, 국내 선수로는 박재홍에 이어 무려 24년 만에 새 역사가 탄생하게 된다.

김도영이 부상당하지 않고, 현재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이번 시즌 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기록이다.

더 나아가 호타준족에 정교함까지 갖춘 타자를 상징하는 '트리플 쓰리'(3할-30홈런-30도루) 달성도 기대해볼만 하다.

KIA 김도영이 지난 23일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6회 투런포를 터뜨린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여기에 팀의 우승과 함께 최연소 MVP까지 차지한다면 그야말로 올해는 김도영이 리그를 씹어먹은 한 해가 된다.

/주홍철 기자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 개막 D-2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4일 프랑스 파리 샤요궁의 태극기와 각국 국기 뒤로 에펠탑의 조명이 빛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6에 마련된 핸드볼 경기장에서 한국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궁·핸드볼 '금빛 도전' 스타트

남녀 랭킹라운드·독일과 조별리그 1차전

27일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공식 일정이 25일 시작된다.

이날 오후 4시30분 프랑스 레쟁발리드에서 열리는 양궁 여자 랭킹 라운드로 우리나라 선수단이 파리 올림픽 여정을 시작한다.

오후 9시15분부터는 양궁 남자 랭킹 라운드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다.

양궁 랭킹 라운드는 개인과 단체전 대진표를 정하는 경기로 당장 이날 메달이 나오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양궁 개인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최대한 늦게 맞대결하려면 랭킹 라운드 상위권 성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랭킹 라운드에서 한국 선수 가운데 남녀 1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혼성 단체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회 3관왕에 오를 기회가 생긴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단 중 유일하게 단체 구기 종목에 나가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오후 11시에 독일을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독일,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강호들과 한 조에 묶였다.

조 4위 안에 들어야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 2차전 상대인 독일과 슬로베니아를 제치고 8강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독일전 승리가 절실하다.

/연합뉴스

꿈꾸던 시상대와 처음 마주한 황선우

"저기 한 번 올라가야죠"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경영 종목에서 남자 자유형 200m와 계영 800m 메달을 노리는 황선우(21·강원도청)는 확실히 큰 무대 체질이다.

황선우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훈련을 소화한 뒤 "수영장이 크면 클수록 더 힘이 난다"면서 "수영장을 보니까 흥분해서 빨리 경기를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곳은 황선우조차 "이제껏 갔던 세계선수권대회나 아시안게임보다 두 배는 (관중석 규모가) 큰 수영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날 수영장을 찾은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올림픽을 준비한 지난 3년 동안 꿈꾸던 시상대였다.

메인 풀 한쪽에 설치된 시상대는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누가 여기 올라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듯 자리 잡았다.

황선우는 "메인 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는 생각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황선우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실시된 훈련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도 한 번 (장난으로) 올라갈 생각은 안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래도 뭐라도 목에 걸고 올라가야지, 그냥은 안 올라간다"며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엔 우승가자"

유해란, CPKC 여자오픈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 중 최근 가장 매서운 샷을 날리는 유해란이 이번 주에는 캐나다로 향한다.

유해란은 지난 4개 대회에서 준우승 한번을 포함해 톱10에 세 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2주 전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5위, 22일 끝난 데이나 오픈에서는 아쉽게 1타 차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LPGA 투어 생애 첫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차지한 유해란은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위해 현지시간 25일부터 나흘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얼 그레이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CPKC 여자오픈에 출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을 앞둔 고진영과 김효주, 양희영은 이번 주 대회에 나서지 않지만, 최혜진, 김세영, 김아림, 신지은, 안나린, 전인지 등 한국 선수 20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파리 올림픽 여자골프 경기에서 각국 대표로 나서는 23명의 선수가 출전해 샷을 점검한다.

부동의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출전하지 않지만 릴리아 부(미국), 이민지(호주), 린시위(중국)를 비롯해 홈 팬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는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나선다.

/연합뉴스

2024 광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 메달을 획득하며 지역 스포츠클럽의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단이 시상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스포츠클럽 새로운 희망'…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단

광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전원 입상 쾌거

금메달 5개·은메달 2개 획득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이사장 최미순, 사업단장 최공집) 태권도 선수단이 '2024 광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단은 지난 19-21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 열린 대회 겨루기 부문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겨루기 부문에서 어린이통합 A 36kg급 송주혁이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카뎃A 57kg급과 51kg급, 36kg급에서 최도진과 박시은, 오하윤도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카뎃A 31kg 김은지는 은메달을 따냈다.

이어 시니어 A 68kg급에 출전한 배성용이 금메달을, -58kg 배문종이 은메달을 획득하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체육인프라를 활용한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을 목표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통한 스포츠 선순환 기틀을 탄탄하게 다진 영암군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스포츠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최공집 사업단장은 "최선을 다해 이같은 성과를 거둔 선수단과 신희원 지도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역 태권도 활성화는 물론, 공공스포츠클럽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양성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 및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서도 꾸준히 입상 실적을 거두며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전남대표 선수단에 3명이 선발되는 등 우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박희중 기자

CMYK